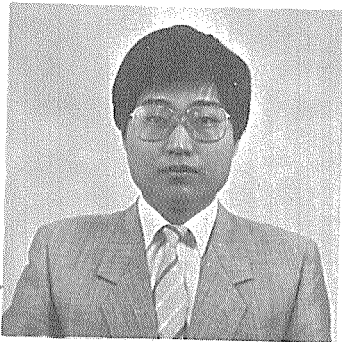


유럽市場의 環境變化와 重電産業의 對應方案



럭키금성경제연구소
산업연구실
나 상 준

1. 序

최근 우리나라 重電業界는 무역수지의 악화와 국제환경의 변화등으로 생산기반마저 위협받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도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고속전철 프로젝트, 지하철 추가 건설, 장기 전원 개발계획 등으로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중전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비해 중전산업이 맞고 있는 환경변화는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輸入自由化에 따라 1989년에는 무역적자액이 8억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7%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2년부터는 9천600억원에 달하는 政府調達 物資市場을 개방해야하는 등 무역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중전산업은 1980년대 이후 고도 성장을 시현하여 1980~88년기간중 전제조업 평균 성장률 17.5%를 훨씬 상회하는 28.9%의 비교적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重電産業은 대표적인 貿易赤字 産業으로서 무역수지적자액은 1981년부터 연평균 14.2%씩 증가하여 1989년에는 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는등 輸入 依存度가 42.6%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중전산업이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생산기술이 취약한데다 업계의 과당 경쟁과 중복투자, 내수중심의 기업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따른 重電製品의 國産化와 輸出産業

화가 업계의 최대 당면과제라고 할 것이다. 정책 당국 역시 중전산업의 위기에 공감하여 최근에 重電産業 開發育成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重電産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중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도모함에 있어서 최근 유럽지역의 환경변화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유럽지역은 전통적으로 중전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기술도입등 협력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東歐市場을 중심으로한 수출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럽지역의 환경변화를 EC 통합과 東歐의 經濟改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들 지역의 중전산업의 개황과 중전수요의 변화방향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지역과의 교류확대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2. EC 통합과 重電産業

1) EC 통합의 概要

1950년대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단일 유럽에 대한 움직임이 이제 2년후면 완성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즉 1957년 결의된 로마조약의 기본이념인 諸障壁의 撤廢와 경제적·사회적 진보의 확보가 이제 거의 실현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계획대로 EC 회원국간에 사람의 왕래는 물론 재화, 서비스, 자본의 이동이 자유화되면 EC는 3억 2천만이 넘는 인구와 美國에 버금가는 GNP, 그리고 2조달러에 육박하는 교역규모를 갖는 세계최대의 단일시장으로 부상하게 된다.

물론 EC의 통합을 위해서는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英國과 같이 EC통합에 소극적인 입장

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單一貨幣制度의 정착, 각종규격의 통일 등 앞으로 많은 문제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 독일의 통일로 독일의 비중이 너무 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기한내에 완전한 통합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EC통합 움직임은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1992년 12월 31일까지 시한내에 몇몇 제안들이 계획대로 채택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장통합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EC의 통합이 EC시장에 미칠 영향으로는 시장확대 효과와 함께 유럽기업의 경쟁력강화, 보호주의의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

먼저 수요확대 측면에서 보면 諸障壁의 撤廢에 따른 利益과 効率化에 따른 利益등 경제규모확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1988년 3월에 발표된 EC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표 1과> 같은 경제적 이익이 효과가 있다고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EC 12개국 전체로는 1988년 가격으로 1,700~2,500억 ECU (2,040억\$ ~ 3,000억\$), GDP의 4.3%~6.5% 향상이 예견되고 있어 통합만으로도 절대적인 시장확대 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産業別로 볼 때 EC통합의 영향은 각 산업의 업종과 지역 그리고 규모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비교적 단순한 기술이 요구되며 노동집약적 분야인 木材, 家具, 가죽산업 등과 같은 분야는 域內國과 域外國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무역장벽보다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제품차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역내의 기업의 대응도 소극적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표 1> EC市場統合에 따른 經濟效果 豫測

(단위 : 10억 ECU, %)

이 익 의 분 류	금액 (10억 ECU)	對 GDP 비중 (%)
1. 무역장벽의 제거에 의해 생기는 이익	8~9	0.2~0.3
2. 생산전반에 대한 장벽의 제거로부터 생기는 이익	57~71	2.0~2.4
3. 장벽의 제거로부터 생기는 이익 (1+2)	65~80	2.2~2.7
4. 규모의 경제추구로부터 생기는 이익	61	2.1
5. 사업의 비효율성·독점적 이윤의 감소로부터 생기는 이익	46	1.6
6. 시장통합으로 생기는 이익 (4+5)	62~107	2.1~3.7
7. 이익합계 (3+7)	170~250	4.25~6.5

資料 : 駐日 EC 委員會代表部, EC NEWS

EC통합의 영향이 가장 큰 분야는 주로 대기업들로 이루어진 大量生産 分野로 電子, 自動車, 컴퓨터, 通信機器, 事務用機器, 航空機, 石油化學産業등이 이에 속한다. 이 분야는 시장규모도 크고 향후에도 성장성이 높아 EC정부의 역내 기업 보호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역내기업들 역시 EC통합에 대비하여 흡수와 합병을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는 등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어 이 부문을 중심으로 역내기업보호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 EC 重電産業의 現況

유럽 산업계의 전반적인 특징은 대량생산 분야에서는 競爭力이 취약한데 비해 受注生産分野에서는 경쟁력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유럽이 이러한 특징을 보이게 된 요인으로는 다음의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시장구조요인으로서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신규수요보다는 대체수요 중심이라는 점이다.

둘째, 산업정책적인 면에서 기간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취하고 있어서 기업의 효율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철강산업에 있어서 1업종, 1국 1기업정책으로 독과점구조를 형성하고 공공조달에 있어서 자국기업 우선정책이 경쟁의 정체를 초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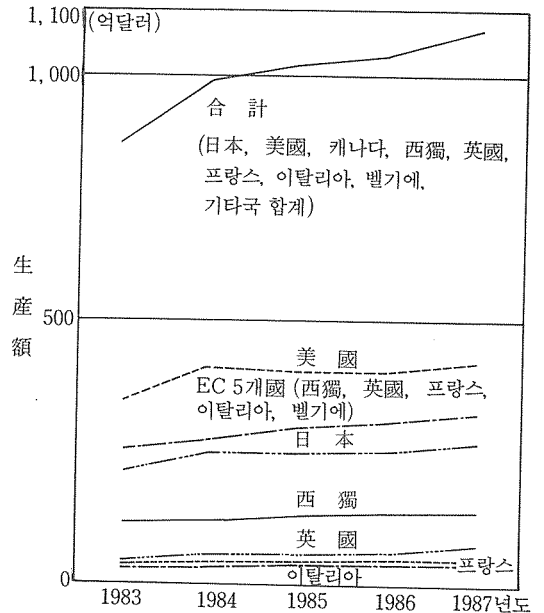
셋째, 문화적, 역사적 측면에서 내구성중시, 보수적 태도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예컨대 자동차의 경우 1970년부터 1987년까지 도요다는 43종의 모델을 내놓는데 비해 폭스바겐은 8종의 모델을 내놓는데 그쳤다.

넷째, 경영요인에 있어서도 수익안정지향, 고유업종 중시경향으로 기업의 변신을 어렵게하고 있으며 제품력 제일주의로 마케팅능력이 뒤쳐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상의 특징과 같이 EC의 중전산업 역시 수주생산산업으로서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EC 5개국의 1987년도 중전기 생산액은 336억\$ 수준으로 日本의 272억\$ 수준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C국가중 중전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서독으로서 산업구조에 있어서도 중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13%로 일본의 2.45%, 영국 2.01%보다

<그림 1> 主要 EC國家의 重電機器 生産推移



資料 : 日本電氣工業協會

일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1인당 전력소비량도 6,221KWH에 달해 EC국가중 최고수준이다

<표 2> 참조

다음으로 TGV 고속電鐵로 유명한 프랑스의 중전

<표 2> 主要 EC加盟國의 重電關聯 指標

	인구 1,000명	1인당 GDP (달러)	1인당 전력소비 (KWH)	제조업대비 중전산업 비중 (%)
서독	61,149	18,296	6,221	5.13
영국	56,890	11,647	4,716	2.01
프랑스	55,627	15,818	5,453	-
이탈리아	57,331	13,108	3,355	-
스페인	38,830	7,417	2,885	1.32
네덜란드	14,671	14,627	-	0.66
포르투갈	10,280	3,512	-	0.58
그리스	998	4,701	-	-
벨기에	9,868	14,035	-	-
덴마크	5,130	19,766	-	1.12
아일랜드	3,542	8,216	-	-
룩셈부르크	372	16,667	-	-
EC 총계	323,688	13,203	-	-
미국	243,915	18,186	10,294	1.29
일본	122,091	19,456	5,535	2.45

산업이 잘 발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음으로 영국, 이태리 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전산업이 잘 발달한만큼 이들 국가들은 유명한 중전기업들을 갖고 있다. 스위스, 스웨덴의 ABB, 西獨의 Siemens, 英國의 GEC, 프랑스의 CGE와 같은 거대 중전 전문회사들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의 중전기기 무역구조를 보

면 回轉機器보다는 변압기를 중심으로 한 靜止機器의 무역이 매우 활발하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특히 서독의 경우 모터류의 생산량은 28억달러로 변압기 생산량 7억달러를 훨씬 능가하고 있으나 정지기기 전체로는 수출액이 60억달러 수입액이 27억달러로 중전기기 전체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이르고 있다 <표 3> 참조
프랑스 역시 정지기기분야에서 수출이 활발할 뿐

<표 3> 주요 EC 국가의 중전기기 무역구조 (1987년)

(단위 : 백만달러)

국가명	항 목	중전기기		회전기기		정지기기		전기절연장치	
			비 중		비 중		비 중		비 중
서 독	수출(A)	8,740	100.0	1,584	18.1	5,973	68.3	1,097	12.6
	수입(B)	4,400	100.0	849	19.3	2,653	60.3	818	18.6
	A-B	4,334		735		3,320		279	
영 국	수출(A)	2,589	100.0	672	26.0	1,448	55.9	387	14.9
	수입(B)	2,918	100.0	402	13.8	1,952	66.9	483	16.6
	A-B	(330)		270		(504)		(96)	
프랑스	수출(A)	3,772	100.0	806	21.4	2,365	62.7	517	13.7
	수입(B)	2,833	100.0	511	18.0	1,756	62.0	486	17.2
	A-B	935		295		609		31	
이태리	수출(A)	2,011	100.0	508	25.3	1,030	51.2	397	19.7
	수입(B)	2,024	100.0	426	21.0	1,320	65.2	192	9.5
	A-B	(3)		82		(290)		205	
미 국	수출(A)	5,528	100.0	932	16.9	3,228	58.4	1,293	23.4
	수입(B)	8,863	100.0	1,278	14.4	5,287	59.7	2,224	25.1
	A-B	(3,336)		(346)		(2,059)		(931)	

자료 : 기계공업진흥회, 기계공업편람, 1990

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수입도 하고 있다. 이는 제품의 종류가 다양한 중전기기의 생산에 있어서 전문분야에 따라 각 나라별로 생산이 특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統合에 따른 重電市場 展望

EC통합에 따른 중전산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무엇보다 중전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전산업이 이미 成熟段階의 산업으로서 근본적으로 성장성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歐美 전체의 중전기 생산 증가율은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연평균 5.8%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향후 電力需要伸張率은 미국이 2.0~2.8% 정도이고 유럽이 2%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중전기 수요증가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중전기기의 급격한 수요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생산설비의 고도화, 합리화를 위한 전자응용제품의 수요증대는 클 것으로 예상되어 電力電子部門을 포함한 중전기 전체로서는 전력수요증가율을 어느정도 상회하는 완만한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C통합에 따라 중전기기의 급격한 수요신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EC역내 기업들의 國際競爭力은 비약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럽의 유명重電회사들이 EC통합시장을 목표로 기업합병과 제휴를 활발하게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멘스는 1988년에 火力·原子力發電 분야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서독 KWU社를 합병하였고 변압기 부문의 TU社를 매수하는 등 중전산업부분을 강화시켜 왔다. 또한 여기에 자금을 받은 스웨덴의 중전메이커 ASEA와 스위스의 중전메이커 BBC는 1988년 1월 Asea Brown Boveri (ABB)를 합병하여 세계시장의 석권을 노리고 있다. 더욱이 ABB는 최근 미국 Westing House의 送配電 設備部門을 합병하여 세계 중전업계의 판도를 바꾸어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英國의 GEC는 프랑스의 CGE와 중전관계 합병회사를 만들어 1992년의 EC통합을 목표로 이 부문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등 유럽지역의 중전회사들의 경쟁력 강화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ABB社는 스위스, 스웨덴이 EC통합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매수를 통하여 EC시장 통합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같은 ABB의 움직임은 EC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中東地

域에서 EC내 중전기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日本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향후 중전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아시아·중동지역의 중전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유럽의 중전기술은 세계최고 수준으로 美國이나 일본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모나 기술적인면에서 세계최고의 중전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EC국가들의 통합은 전세계 중전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고 우리나라에는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3. 東歐의 經濟改革과 重電市場

1) 東歐 經濟改革의 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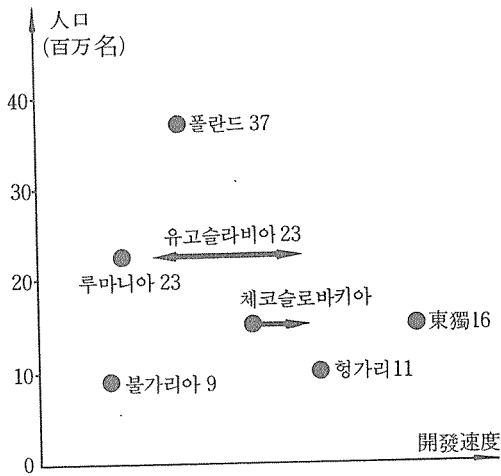
1989년 한해 동안 정치적 대변혁을 경험한 동구제국들은 이제 정치적 개혁으로부터 經濟再建·復興으로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동구국가들의 개혁은 그 진행속도나 추진주체세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각기 다르지만 낮은 이데올로기를 탈피하고 민주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공산당의 권위와 전통성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동구권 경제개혁의 배경은 한마디로 경제피폐라고 할 수 있다. 늘어나는 채무와 경제성장의 둔화, 서방국과의 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등 경제난이 극도에 달했기 때문이다. 동구권 국가들은 이러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價格自由化, 私 有財產制 도입, 通貨의 兌換化 등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대폭 도입한 경제개혁조치로 근본적인 수술을 서두르고 있다 (<표 4> 참조).

물론 아직 이러한 경제개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여 개혁의 성공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특히 기존의 누적채무와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초래된 악성인플레이션 등으로 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경제개혁이 정착되면 1억 3천명에 달하는 인구를 바탕으로 하는 거대한 시장이 세계경제에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동구를 무역상대국으로서 혹은 투자대상국으로서 고려할 때 경제규모 뿐만 아니라 개혁의 속도라든가 투자의 조건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동구국가의 규모와 개혁속도를 비교한 것이 <그림 2>

〈그림 2〉 東歐諸國의 經濟開發
速度와 市場規模



資料 : 日本工業新聞

있다.

2) 東歐의 重電産業과 市場展望

먼저 소련과 동구국가들의 1인당 전력소비량을 보면 동독이 7,089Kwh로 가장 높으며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등이 3,300~3,400Kwh로 가장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치는 EC국가나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동구 국가들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중공업우선 정책과 기간산업의 확충으로 중전산업이 매우 발전되어 있음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표 6〉, 〈표 7〉은 각 국가들의 주요 중전기기 생산량과 무역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통계에 따르면 동독은 비교적 소형모터와 변압기부문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고 폴란드는 대형 전동기와 변압기분야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표 4〉 東歐 主要諸國의 改革 現況

	개혁선언	경제현황	향후전망
헝가리	68년	시장경제제도 적극 도입	지속적으로 개혁 추진
폴란드	89. 9	90. 1월부터 시장경제화 추진	동구권내 최대시장 가능성
동독	89. 11	90. 7. 2일부터 서독과 통화 통합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서독에 흡수 통합
체코	89. 11	시장경제화 적극 추진	투자대상국으로 유망
루마니아	89. 12	동구권중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	5월에 자유총선 당분간 혼란 지속
불가리아	89. 12	시장경제 일부 도입	개혁속도가 다소 낮음

資料 : 렉키금성경제연구소

이다.

폴란드는 동구국가 중 가장 인구가 많아 잠재시장으로서 가능성이 크지만 경제개혁 속도가 낮다. 반면에 동독이나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는 인구가 적은 대신 개혁속도가 빨라 경제규모가 작음에 비해 시장으로서 魅力度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국기업이 합작투자를 할 경우 국가간에는 그 조건이 각각 다른 것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5〉는 동구국가들의 합작조건을 요약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외자의 허용정도라든가 免稅期間, 硬貨에 의한 이익송금 가능성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가 유리한 면을 보이고 있어 이들 국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東獨이 서독과의 통일로 동독경제의 재건과 함께 이들 3국의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는 전분야에 걸쳐 고른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불가리아는 인구규모에 비해 중전산업이 잘 발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동구국가중 중전기기 주요수출국들로서 동독과 불가리아는 發電機와 電動機, 폴란드는 발전기와 변압기, 체코는 전동기와 변압기를 수출하고 있는 반면 동독과 불가리아는 변압기를 수입하고 있어 각 국가별로 중점생산 품목이 다를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동구국가들 중 중전산업이 가장 균형적으로 발전한 나라는 폴란드이며 다음으로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순으로 중전산업의 발전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투자조건이 유리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헝가리의 경우는 여러가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중전산업은 많이 발전해 있지 못한

〈표 5〉 東歐諸國의 合作投資 條件 比較

	소 련	헝거리	체코슬로바키아	폴 란 드
합작투자 허용분야	제한없음	제한없음	방위안보에 중요한 분야이외에는 제한없음.	국가의 경제적 이익 및 안보,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분야
외국측의 자본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최저 20%
경화에의한이윤송금	통상20%과세제한적임	제한없음	제한없음	15% 제외하고 가능
면세조항	2년동안 면세, 감세	5년간	국가결정에 따름	3~6년간
과 세	최초이윤 발생후 2년후부터 30%	40% 법인세	이윤에 대해 50%, 배당송금시 25% 추가	이윤에 대해 40%, 배당송금시 30% 추가

資料 : 렉키금성경제연구소

것으로 평가된다. 헝거리의 1988년 증전기기 수출은 약5억 달러, 수입은 3억달러 정도이며 수출의 주종은 發電所 配電設備가 25%, 家庭用 電氣機器 및 電線類가 18.5%와 13.1% 정도로 무역량도 적은 편이다. 주된 수출선은 유럽지역이 중심이고 주수입선은 동구 국가를 비롯한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영국, 터키 등 여러지역에 걸쳐 있다. 따라서 헝거리의 경우 향후 경제개혁과 함께 전력수요증가와 증전기기 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동구국가들의 증전기술 수준을 보면 전반적으로 西歐유럽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이다. 내용별로 보면 水力 및 火力發電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술 수준을 확보하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분야, 초고압 대응기술, 전력전자분야에서는 서방국가들에 비해 크게 뒤진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별로 볼 때 COMECON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통계를 얻기 힘들지만 동구국가중 유고슬라비아가 증전기술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고는 RADE, KONCAK, INGRA, ISKRA, JUGOTURINA 등 거대한 증전회사를 갖고 있어 이들 기업의 종업원만 70,000명에 이르고 있는 등 동구국가 최고의 증전 산업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구의 증전산업은 양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하였으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서방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구의 증전산업은 향후 상당한 발전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가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헝거리, 루마니아 등 동구 국가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증전산업이 낙후된 나라들

을 중심으로 상당한 수요증대가 예상된다.

동구 증전시장은 무엇보다도 경제제건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증전기기에 대한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消費材 중심의 경제정책이 예상되는 만큼 소형모터 등의 수요는 급신장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성향상을 위한 工場自動化도 급진전될 것으로 보여 電力電子分野의 수요증대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예상된다.

4. 우리나라 重電産業의 對應方案

이러한 유럽지역의 급격한 환경변화는 우리나라 증전산업에 기회요인임과 동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EC라는 거대한 시장의 탄생과 동구국가들의 개방이라는 시장확대 효과와 함께 최고의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기업의 세계진출로 우리나라의 輸出障壁은 더욱 높아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통적으로 증전산업을 보호육성해 온 동구국가들의 세계진출은 우리나라 증전업계에 큰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輸出産業化를 당면과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증전업계로서는 유럽지역의 환경변화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와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증전산업은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유럽지역의 환경변화에 대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로 협조하는 共同的 對應方案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보다 기술수준이 월등한 유럽지역에 대한 진출에 있어서 국내기업들간의

〈표 6〉 東歐諸國의 主要重電機器 生産量(1987)

(단위: 천 KW, 천 KVA, 대, 천대)

국 명	기기종류 단위	소형교류전동기	대형교류전동기	터빈용발전기		동력용변압기	
		천 KW	천 KW	대	천 KW	천 대	천 KVA
불 가 리 아		3,600	1,533	-	-	2.0	4,983
헝 거 리		1,081	163	-	-	84.1	2,385
동 독		7,629	-	15	63	11.2	10,662
폴 란 드		3,044	1,242	9	813	71.3	10,314
루 마 니 아		N.A	N.A	NA	-	-	-
소 련		46,632	7,999	82	12,573	224	164,147
체코슬로바키아		4,559	1,075	27	714	37.9	6,528

資料: 코베콘 통계연감 註: 소형교류전동기는 출력 0.25~100KW, 대형교류전동기는 출력 100KW 이상

〈표 7〉 東歐諸國의 主要 重電機器 貿易量(1987)

(단위: 천대, 대, 백만루블)

국 명	수출/수입	전동기(천대)	발전기(천대)	변압기(대)
		불 가 리 아	수 출	868
	수 입	8.7	-	41
헝 거 리	수 출	101	-	-
	수 입	146	-	-
동 독	수 출	63.9*	2.3*	5.0*
	수 입	59.1*	0*	16.4*
폴 란 드	수 출	893	9,526	1,549
	수 입	426	2,577	1,000
소 련	수 출	-	-	15.5*
	수 입	4,653	-	5.5*
체코슬로바키아	수 출	1,661	-	3,251
	수 입	218	-	858

註: 동독의 전품목과 소련 변압기의 경우 백만루블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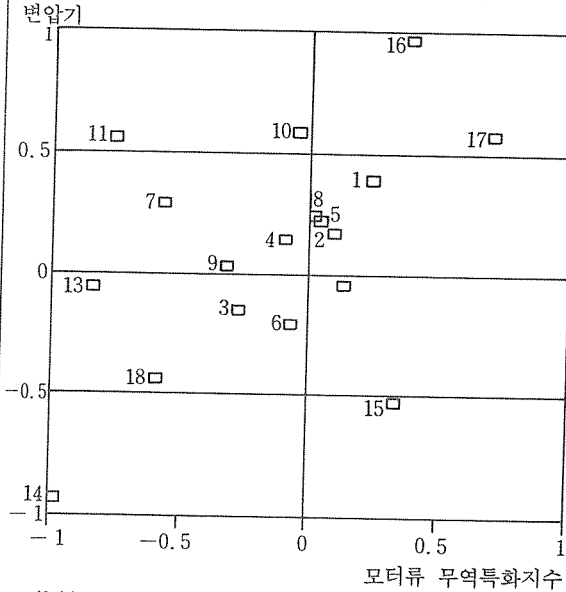
경쟁은 모두에게 피해를 줄 뿐인 것이다. 특히 서유럽과 동구지역은 미개척지역인 만큼 綜合商社의 축적된 정보를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EC국가들과 동구국가들의 기기별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국내 중전업계의 수출방향이 개략적이거나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중전기기인 모터류와 변압기류의 국가별 무역특화지수에 따라 각 나라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 <그림 3>이다. 무역특화지수는 무역수지 (수출 - 수입)를 총무역액 (수출 +

수입)으로 나눈 것으로 해당국가, 해당기기의 대략적인 국제비교우위를 나타낸다. 여기서 1/4분면에 위치한 나라들은 모터류와 변압기 양면에서 수출특화하고 있는 나라들로서 서독, 프랑스, 폴란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4분면에 위치한 벨기에, 스위스, 포르투갈 등은 변압기를 수출하고 모터류를 수입하는 나라들이다.

이와 같이 볼때 우리 업계로서는 어느정도 기술수준만 갖추어진다면 영국, 헝거리 등 비교적 시장이 크고 수입의존이 높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그나라에

〈그림 3〉 유럽국가들의 모터류와 변압기류 무역특화구조 (1987)



資料 : UN, Annual Review of Engineering Industries and Automation, 1990

註 : 무역특화지수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 | | |
|--------|----------|----------|
| 1. 서독 | 7. 벨기에 | 13. 노르웨이 |
| 2. 프랑스 | 8. 이탈리아 | 14. 그리스 |
| 3. 영국 | 9. 네덜란드 | 15. 헝가리 |
| 4. 스웨덴 | 10. 스위스 | 16. 폴란드 |
| 5. 핀란드 | 11. 포르투갈 | 17. 일본 |
| 6. 덴마크 | 12. 스페인 | 18. 미국 |

맞는 상품을 선정, 중점 수출품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EC지역에 대해서는 당장의 직접적인 수출보다 시스템 프로젝트에 EC기업과 공동참여하거나 OEM방식의 단품수출을 통해 기술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로서는 EC기업과의 현격한 기술격차로 인해 이지역에 대한 수출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EC통합에 따른 域内企業 保護主義 強化로 이지역에 대한 수출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 현재로서는 EC기업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동구지역에 대해서는 경제개방과 개혁에 따라 需要擴大가 예상되는 만큼 이 지역에 대한 수출증대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별로 볼때 헝가리의 중전산업이 낙후되어 있고 시장규모도 큰 만큼 이 지역에 대한 수출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력전자 등 우리나라의 기술이 앞선 분야도 있는 것으로 보여 동구진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구경제가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開發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情報蓄積과 관계심화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구지역에 대해서는 EC기업의 우위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 중전기기업들 간에 혹은 외국기업들과의 진소시업 形態의 프로젝트 수주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절약하는 고운마음 애국하는 장한마음